

진도·정선·밀양아리랑... 3대 아리랑 협연무대

오늘 '세계로 올리는 아리랑'

본보·아리랑국제방송 주관
국립과천과학관 어울림홀 공연
진도군립민속예술단 등 선보여
국악그룹 '온도' 등 편곡 무대도

호남 대표 진도아리랑과 강원도 정선아리랑, 경상도 밀양아리랑 등 3개지역 아리랑이 협연하는 무대가 열린다.

세계 속 아리랑을 만날 수 있는 무대 '세계로 올리는 아리랑'이 8일 오후 7시 30분 국립과천과학관 어울림홀에서 개최된다.

전남일보와 아리랑국제방송이 주관하고 진도, 정선, 밀양 등 아리랑 3대 연합회가 주최하는 이번 공연은 국악, 재즈, 클래식 등 장르와 형식으로 선보인다. 영어 방송인 제니퍼 클라이드 사회로 진행되며 108개국에 송출하는 한국의 글로벌 방송인 아리랑TV에서 중계한다.

공연에는 △진도군립민속예술단 △국악인 이춘희 △피아니스트 양방언 △감내계줄당기기보존회 △국악그룹 온도 △국악인 민영치와 음악인 이시카와 토모히사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국악그룹 엑스 △아리랑 앙상블 △국악인 고영열 등이 출연한다. 저마다 특색있는 공연을 펼쳐보이며 객석과 무대를 하나로 묶어낼 예정이다.

진도군립민속예술단은 지난 1993년 만들어진 첫 군 단위 예술단체로 진도의 예향을 알리는 문화사절단 역할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 진도아리랑 별곡을 선보인다.

국가무형문화재 경기민요 예능 보유자인 이춘희는 유네스코에 아리랑 등재가 확정되는 날, 파리의 유네스코 회의장 무대에 올라 아리랑을 열창한 바 있다. 이번 공연에서 서울긴아리랑, 구아리랑, 본조아리랑을 선보이며 아리랑 본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한다.

재일 한국인 2세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인 양방언은 대통령 취임식 주제곡 '아리랑 판타지'

를 작곡했으며 락, 재즈, 클래식, 국악 등의 다채로운 장르를 넘나들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 정선아리랑을 연주한다.

감내계줄당기기보존회는 밀양감내에서 정월대보름을 전후로 마을 사람들이 시합으로 즐기던 놀이인 '감내계줄당기기' 보존을 위한 단체다. 2013년부터 국민대통합아리랑·아리랑대축제 등에 참여하면서 아리랑을 알리는데 힘쓰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 밀양아리랑을 선보인다.

JTBC 국악 경연 프로그램 풍류대장에 출연한 국악그룹 '온도'는 국악으로 재해석한 K-POP 무대를 선보이며 진도아리랑을 부른다.

재일동포 3세 국악인 민영치와 일본의 음악감독이자 사운드 크리에이터 이시카와 토모히사는 콜라보 무대를 준비했다. 이번 공연에서 밀양아리랑(날 좀 보소)을 선보인다.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은 정선지역 토속적인 정서를 지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아리랑'의 멋과 아름다움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에서 정선아리랑 소리공연을 연다.

퓨전국악그룹 엑스는 밀양아리랑을 편곡해 선보인다. 공연 중간에 상황에 맞는 연기와 사운드, 퍼포먼스를 추가해 차별화된 무대를 꾸민다.

2012년 창단된 아리랑앙상블은 진도아리랑을 편곡한 '아리랑의 산책'을 선보인다.

피아노 치는 감성 소리꾼 고영열이 '새로 그린 아리랑'을 선보이며 대미를 장식한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진도·정선·밀양은 2021년 대한민국 3대 아리랑 공동협의체를 설립해 아리랑 세계화와 체계적 보존·전승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3개 시·군은 전 세계인에 사랑받는 아리랑이 될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사전 예약도 가능하다. 사전 예약 티켓은 공연 당일 현장에서 배부한다. 무료공연 좌석은 당일 오후 6시부터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배정한다. 문의는 전남일보 사업본부(062-519-0730~1)로 하면 된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ACC, 19~20일 부설주차장서 영화 상영

사전 예약... 친환경 차량만 입장 가능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오는 19~20일 오후 7시 30분 ACC 부설주차장에서 친환경 자동차장 '2023 드라이브 인 ACC'를 연다. '드라이브 인 ACC'는 관람객이 친환경 자동차를 타고 와 차에서 대형 스크린 속 영화를 감상하는 '무공해·무소음의 친환경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19일 겨울 영화 대명사 '러브 스토리'가 상영된다. 이 작품은 제43회 아카데미 시상식 음악상에 이어 제28회 골든 글로브에서 작품상, 여우주연상, 감독상, 각본상 등을 거머쥔 명작이다. 아름다운 영화음악(OST)과 함께 영원한 사랑이야기로 로맨틱한 추억 여행을 선사한다.

20일 스톱 모션 애니메이션 소재의 판타지 뮤지컬 '팀 버튼의 크리스마스 악몽'을 선보인다. 오싹한 재미와 함께 신비한 마법과 예술적인 비주얼로 수많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 작품을 통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

'2023 드라이브 인 ACC'는 친환경 차량만 입장 가능하며 사전예약을 해야만 관람할 수 있다. 정보 및 예약은 ACC 누리집(www.ac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람료는 무료다.

도선인 기자



김선희 작가 12번째 개인전 '마이 리틀 히어로'

31일까지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김선희 작가의 개인전이 '마이 리틀 히어로'란 주제로 오는 31일까지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에서 이어진다. 이번 전시는 광주예술의전당 전시지원으로 치러지는 김선희 작가의 12번째 개인전이다.

고단하고 외로운 현대사회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김선희 작가는 반려견을 키우면서 행복하고 소중한 순간들을 작품에 그려내며, 인간과 동물의 교감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작품 40점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의 주제 '마이 리틀 히어로'는 외로운 마음을 위로하며 행복을 주는 반



김선희 작 '캣우먼'

려동물이 바로 우리 마음을 구해주는 이 시대 진정한 영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작품 속 강아지, 고양이, 토끼 등 얼굴은 동물의 모습이지만 복장은 마블시리즈에 등장하는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배트맨 등 히어로의 모습으로 유패하고 재치 있게 그려낸다. 이렇게 의인화된 동물의 표정과 행위는 동화적 상상력을 자극하며 작품 속 이야기에 빠져들게 한다.

김선희 작가는 전남대 대학원 미술학과 졸업 후 광주미술협회, (사)한국창조미술협회, 광주미술작가회, 국제한글장에 인미술협회의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도선인 기자

동구문화관광재단, 7~13일 연말 감사 SNS 이벤트

인스타그램 방문 등

"연말에 소식이 쏟아진다!" 연말 광주시 동구문화관광재단이 7~13일 SNS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총장 프렌즈 캐릭터 소덕이와 친구들(쥬·로라·고고·부리)이 한 해 동안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 의미로 40명에 경품을 증정한다. 경품은 제20회 광주 추억의 총장축제 '총장 프렌즈' 인기 굿즈, 2024년 새해 다이어리 스티커(다꾸 스티커), 모바일 상품권 등을 랜덤박스 형태로 추첨을 통해 제공된다.

재단인스타그램 계정(@donggumunhwa



광주시 동구문화관광재단 연말 감사 SNS 이벤트 진행.

2023)을 방문 △팔로우하기 △이벤트 피드에 '2024년 소원' 댓글 달기 △피드 좋아요를 하면 참여가 완료된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15일 DM 또는 재단 인스타그램에서 발표한다. 총장 프렌즈(소덕이·쥬·로라·고고·부리)는 제20회 광주 추억의 총장축제에 처음 선보인 캐릭터다. 현재 광주시 동구문화관광재단 SNS채널에서 마스크트로 활약 중이다.

문창현 대표는 "재단 인스타그램을 통해 감사 의미로 SNS이벤트를 기획했다"며 "다양한 이벤트로 소통하고 지역과 축제를 알리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